

일터 잃을 위기 노동자·대피소 찾은 주민 “이게 무슨 난리냐”

인근 주민들 화재·연기 피해 대피소로...역한 냄새에 창문도 못열어 수개월 이상 공장 중단 예상 3000여 노동자들 고용·임금 문제 걱정

금호타이어 공장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가 이틀째 이어지며 광주시민들은 숨막히는 주말을 보내야 했다. 큰 불은 잡혔지만 화재가 이틀째 이어지면서 대피한 주민들 뿐 아니라 연기와 매캐한 타이어 타는 냄새 등으로 상당수 주민들은 창문을 닫고 생활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노동자들도 당장 일자리를 잃게 되는 것 아닌지 발발 동동 구르고 있다.

◇“밤새 한숨도 못 잤다” 고통 호소=금호타이어 화재로 광주시 광산구 광주여대 체육관에 마련된 주민 대피소를 찾은 주민들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대피소 생활에 막막한 속내를 감추지 못했다.

광산구는 화재 발생일인 17일부터 체육관에 구호 텐트를 설치키로 하고 지역민 600여세대에게 대피 문자를 보냈다. 18일 오후 1시 기준 텐트 129개가 설치됐고 69개가 채워졌다.

아들이 금호타이어 직원으로 있다는 김영만(81·광주시 광산구 소촌동)씨 부부는 전날 마을회관에서 밤을 지내고 ‘대피소로 가져’는 이웃들 제안을 받고 가장 하나만 들고 이날 광주여대 체육관을 찾았다. 김씨는 “고무 타는 냄새가 독해서 머리가 아플 정도였다. 헝기 소리와 물 뿌리는 소리에 밤새 한숨도 못 잤다”고 했다.

공장 걱정도 했다. 김씨는 “공장이 문을 닫으면 일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고 걱정했다. 김씨 배우자도 “불이 크게 나 얼마나 놀랐는지 모른다. 텐트 안에 누워 있는 것도 어색하다”고 말했다.

이날 대피소에 마련된 보건소의료지원 부스에는 연기 흡입으로 두통, 메스꺼움, 목마름 등을 호소하는 지역민의 방문이 이어졌다. 광산구는 이날 오후 2시 기준 50명이 의료 상담을 받았고 27명의 주민이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심리지원 상담을 받았다고 밝혔다. 한금호(76)씨도 “흔자 여기 왔는데, 막상 오보나 집에 있는 것보다는 덜 불안하다. 그래도 가슴이 답답하고 몸이 무거운 건 어쩔 수 없다”고 눈물을 흘렸다.

◇“밤 안에 깊혀 창문도 못 열어”=대피하지 않은 주민들의 불안감도 비수했다. 이날 소촌동 인근 지역 주민들은 전날부터 극심한 연기와 냄새로 인해 창문조차 열 수 없었다고 입을 모았다. 거동이 불편한 고령 주민은 집 안에 갇힌 채 밤을 지새우며 공포에 떨기도 했다.

소촌동에 거주하는 최광(76)씨는 “지나해 허리 수술 후 침대에만 누워 지내는데 움직일 수가 없으니 너무 불안했다. 연기는 들어오고, 냄새는 나는데 밤 안에 그대로 갇혀 있었다”며 “밖에서 뿜’하는 소리도 서너번 들렸다. 그때마다 심장이 벌렁벌렁 하더라”고 당시를 회상했다.

신촌동에 거주하는 박종화(63)씨도 “바람을 타고 연기가 넘어오면서 아파트 앞이 새까맣다”면서 “마스크를 써도 머리가 지끈거릴 정도로 냄새가 심했다. 창문 닫아봤자 소용이 없었다”고 고개를 저었다.

공장 정문 바로 맞은편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김영례(61)씨는 이를 내내 청소를 했지만 아직도 군데군데 까만 타르가 남아있다고 벽을 닦아 보았다. 김씨는 “20년간 이런 화재는 처음”이라며 “예약했던 손님들에게 다 전화 걸어서 오지 말라고 하고 하루 종일 바닥과 소파를 닦았다. 근데 아직도 검은 먼지가 계속 묻어난다”고 토로했다.

◇금타 광주공장 노동자, 직장 잃을 위기=광주공장 노동자들도 당장 일터를 잃을 위기에 처했다. 금호타이어에 따르면 광주공장에는 노동조합원만 1600여명에 달한다. 정비·식당·청소 등 직접 생산라인이 아닌 이른바 ‘총무상’ 노동자(비정규직)는 100여명으로 알려졌다. 연구직, 사무직 등을 포함하면 총 3000여명 가까운 직원이 있다.

화재 현장 복구를 위해 최소 수개월 이상 공장 가동이 어렵다는 점에서 고용과 임금 문제 등이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광주공장 직원들은 긴장하고 있는 모양새다.

노동자들 사이에서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일할 수 있는 공장이 없으니 임금도 없을 것이라는 말



18일 광주시 광산구 광주여대 체육관에 금호타이어 공장 화재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의 대피소가 마련돼 있다. /나명주 기자mjna@kwangju.co.kr

부터, 노동자들의 실수가 아닌 만큼 임금 70%를 보전해 준다는 말이 나오는 등 어수선한 분위기다.

한 생산직 직원은 “특히나 지출이 많은 5월 가정의 달인데, 당장 이번 달부터 월급이 제대로 나오지 않을까 걱정”이라며 “이들 학자금 대출에 아파트 대출, 생활비까지 매달 나가는 돈도 많은데, 공장 가동 중단이 장기화돼 회사가 문이라도 닫는다면 하루 아침에 백수가 되는 것 아니냐”고 하소연했다.

또 다른 직원은 “공장이 멈춰서면 최소한의 급여만 지급될 가능성이 커 앞으로의 생계유지 등이 고민스럽다”면서 “일부 직원은 벌써부터 다른 직업을 찾아 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을 한다”고 답했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공장 복구 시기, 정상 가동 여부 등 다양한 변수가 있어 직원 대책을 지금 당장 구체적으로 밝히기는 어렵다”며 “다만 노동자 생계가 걸린 문제인 만큼 최대한 빠르게 노사 협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중앙·지방 협력 신속한 피해복구 지원”

대선주자들 일제히 금호타이어 화재사고 우려·이재민 위로

대선후보들이 일제히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사고에 대한 우려와 함께 이재민에 대한 위로에 나섰다.

18일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에 따르면 전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화재로 대피한 이재민들이 대피해 있는 광주여대 유니버시아드 체육관에 마련된 대피소를 찾았다.

이 후보는 박병규 광주시 광산구청장으로부터 상황보고를 받은 후 체육관에 설치된 텐트 안에 머무르는 이재민을 만나고 자원봉사자와 공무원도 격려했다.

이 후보는 “갑작스러운 화재로 주민들이 불편이 큰데, 화재가 신속히 진화되고 부상자들도 빠르게 쾌유하길 바란다”면서 “중앙과 지방이 협력하여 신속한 피해복구 지원이 이뤄지도록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광주지역 집중우세에 나선 이 후보는 “금호타이어 화재 때문에 집중우세를 고민했다”면서도 “많은 유권자와 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해 집중우세를 하게 됐다. 물적 피해가 크지만 조속한 진화로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행한 양부남 광주시당 선대위원장은 “주민 피해 복구와 보상, 재난지역 선포 건의,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종합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도 같은날 광주를 찾아 “빨리 진화되고, 부상자도 반드시 완치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선거대책위원회의를 마친 뒤 “화재, 특히 노동 현장 화재는 앞으로 철저히 막고 이런 산업재해와 산업 현장 화재가 없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페이스북에서도 “조속한 진화와 함께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방 당국과 관계기관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주시기를 당부한다”며 “유해가스 피해 등 각종 안전사고가 없도록 관계 당국의 빈틈없는 조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8시에 화재로 대피한 이재민들이 모여있는 광주여대 유니버시아드 체육관 내 대피소를 찾았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이재명 '4년 연임 개헌 제안'

▶1면에서 계속

검찰의 영장 청구권 독립 규정을 폐지하자고도 주장했다. 이 후보는 “적법한 권한을 가진 다른 기관이 영장을 청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수사기관끼리 견제가 가능해야 한다”고 했다.

지방자치권을 강화하기 위해 “대통령과 총리,

관련 국무위원, 자치단체장 등이 모두 참여하는 헌법기관을 신설해야 한다”고 했다.

이 후보는 대통령 연임제 적용과 관련해 “우리 헌법상 개헌은 재임 당시 대통령에게는 적용이 없다는 개헌 헌법 부칙에 명시돼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87제도가 효용을 다했다고 생각한다면 ‘제7공화국을 열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많고 당위성도 있었는데 정치적 이해관계를 조정하지 못해 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광주시,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지정 건의...특교세 13억 포함

광주시가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 수습을 위해 행정안전부에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요청했다.

18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날 광주시 광산구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 현장을 찾은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에게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했다.

광주시는 광산구가 특별교부세 13억원의 포함된 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함에 따라 이같이 요청했다. 특별재난지역은 정부가 재난상황을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해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국고 등의 지원을 위해 선포한다.

광주시는 장기간 공장 중단으로 발생한 파장에 대비하고 수습책을 마련하고 있다. 당장 공장이 장기간 가동되지 않게 됨에 따라 금호타이어 광주공

장 노동자들의 경제적 상황이 악화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금호타이어가 소재하고 있는 광산구는 고용노동부에 산업고용위기지역 검토를 지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산업고용위기지역이 지정되면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노동자 한명 당 하루 7만원 정도의 수준의 지원금이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

관련 업계 파급효과로 기아차와 광주글로벌모터스에 대한 파장은 미비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금호타이어가 납품되는 차량(펠리세이드, EV9 등) 생산라인이 광주지역에는 없다는 점에서다.

화재로 인한 환경오염과 지역민들의 건강권에 대한 모니터링도 당분간 지속될 방침이다.

광주시는 영산강유역 환경청과 광주시 보건 환경

연구원과 함께 화재로 인한 실시간으로 오염과 인체 유해성을 파악하고 있다. 현재까지는 오염수준과 인체 유해성은 미비한 수준으로 확인됐다.

광주시는 광산구 보건소 등에 피해 주민의 실태 파악을 위해 피해 접수창구도 조만간 개설할 방침이다. 지역민들의 차량 등 개별 물품에 대한 피해는 접수창구를 통해 접수하고 심의를 거쳐 금호타이어 측과 협의해 보상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또 광주시는 보유중인 방진마스크 8500여개를 필요한 지역에 배부하고 있고 대피를 희망하는 지역민을 위해 광주여대 체육관에 대피소를 운영하고 있다.

한편, 강기정 광주시장은 19일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 대응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분할합병공고
(분할 이익 및 주권재출 공고)

주식회사 케이엘엘(이하 '갑'이라 함)과 주식회사 엘비(이하 '을'이라 함)은 각각 2025년 05월 18일 임시주주총회의 결의로 상호합병으로 합병하여 '갑'의 기존 재산(영업)의 일부를 '을'로 분할하여 '을'의 분할 부분과 '을'이 합병하고 '갑'은 존속하기로 하였으며, '갑'의 분할된 전기공급업의 재산, 부채등 '갑'의 전기공급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는 '을'이 승계하며 합병 제 53조(3)의 제9항의 의지 분할된 재산만을 출자금으로 인정하고 '을'은 출자 받은 출자재산 이외의 의무에 대하여는 연대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기로 결의하였는 바 이 분할행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 공고 게재일 익일(5월 19일) 이내에 관계회사에 이의를 제출하고 주주는 주권을 제출하여 주사기 바라며, 이의가 없으면 분할행위를 승인한 것으로 간주함을 공고 및 회고합니다.

2025년 5월 19일
"갑" 주식회사 케이엘엘
광주광역시 남구 에너지밸리산업3로 52(압호동)
대표이사 조성근

"을" 주식회사 엘비
전라남도 목포시 상정로 268-1, 근화타워빌딩
상가동 103(상정동)
대표이사 정태식

회사분할공고

동양토건 주식회사(이하 '갑')는 한국에너지공사(주), 자판코 성장투자사업 부문을 2025년 5월 16일 주주총회의 결의로 분할하여 신설회사(가)인 다에스토건 주식회사(이하 '신설회사')를 설립하고, '갑'은 존속하기로 결의하였고 동 회사분할에 의하여 '갑'의 주식 25,000주를 소지하여 자본금 250,000,000원을 감액하기로 하였으므로 상법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 나 본 회사 분할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 및 주주는 아래 기한 이 내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고, 주주는 동 기간 내에 주권을 제출하여 주사기 바랍니다.

- 이 해 -
1. 갑이 분할하고자 하는 사업: 최근코리아투자사업 (연말 92-10-145)
자판코 성장투자사업 (주번호: 포공사, 포장공사) (사출 82-02-395)
2. 분할(당도)예정일: 2025년 06월 20일
3. 채권자의 이의 주권 제출 기한: 2025. 5. 20. ~ 2025. 06. 19.
4. 분할신설회사 - 상호: (가칭) 다에스토건 주식회사
주소: 전라남도 순천시 장천2길 20(장천동)
대표이사: 임병진

2025년 5월 19일
동양토건 주식회사
전라남도 순천시 장천2길 20(장천동)
대표이사 임병진

자본합병공고

당 회사는 2025. 5. 14. 사원총회에서 자본의 총액 금 100,000,000원중 금 90,000,000원을 감소하여 자본금총액을 금 10,000,000원으로 할 것을 결의하였으므로 본 자본감소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본 공고게시일 익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5월 19일
유한회사 도암주유소
강진군 도암면 도암중앙로 10
이사 서재의

못 받은 돈 회수

※ 1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도 가능합니다!
특수채권 담당자 전문 추심합니다.
27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전세보증금, 경매건 및 미배당채권, 상속채권 전문 회수
- 분양대금 연체 등, 채무자(신용)재산조사만 의뢰 가능
- 법인공사대금, 각종 외상 미수금 회수 전문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중앙신용정보 직통전화 062)521-4109
010-2785-0073

명당 전원주택 매매
전남 담양군 수북면 병풍산 자락
경치 최고, 공기정청지역, 평지

대지 704py 1층 주택 60py(최고급자재)
카페 및 부속건물 20py (툇방 100py,
트랙터, 비닐하우스 30py, 화장실 3개)
투자 및 숙박, 요양시설 용지 최고.

**매매가 18억(융자 11억)
인수가 7억**

010-3646-8700

상속한정승인공고

- 피상속인: 망 장종후(481110-1XXXXXX)
- 최후주주: 전남 고흥군 금산면 거금리 1616-6
- 피상속인 망 장종후의 상속인은 위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한정승인을 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2025년 5월 20일 신청하여 2025년 5월 15일 심판 인용되었으므로 피상속인에 대한 일반 채권자 및 주주자는 공고일로부터 신고기간내에 채권신고를 하시지 바라며 위 기간이 지나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25년 5월 19일

- 상속인: 1. 장덕자(570806-2XXXXXX)
전남 고흥군 금산면 거금리 1616-6
- 2. 장성희(820125-1XXXXXX)
전남 고흥군 금산면 거금리 1616-6
- 신고기간: 2025. 5. 19. ~ 2025. 7. 29.
- 채권신고소장: 상속인 1.장덕자의 주소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 부수

독자와 함께 걸은 길 73년
光州日報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이날

광고문의 227-9600 | 신문구독 220-0551 | 여행구독 220-0550